

# 기록하는 힘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사람들이 세우는 신년계획에 대해 인터뷰했는데, 당시 응답자는 자신의 계획을 적어두는 사람과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1년이 지나서 과거의 응답자들을 다시 인터뷰 해본 후,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계획만 세우고 적어두지 않은 사람 가운데는 오직 4퍼센트만이 어떤 변화를 이루어낸 반면, 결심한 내용을 적어둔 사람의 경우는 무려 46퍼센트가 계획을 관철해 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결심한 내용을 종이에 적은 행동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취율의 차이가 무려 1,100 퍼센트였던 것이다.

글로 쓰고 안 쓰고의 사소한 듯 보이는 그 차이는 정말 엄청난데, 헨리에트 클라우저 박사는 『쓰면 이루어진다』는 책을 통하여 아들과 자신이 겪은 일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녀가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영감을 떠올리게 된 것은 아들 피터의 작은 경험담 덕분이었다. 그녀의 아들 피터가 12살 때, 하루는 피터가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는 매우 당황해 하며 그녀에

게 다가왔다. “방 청소를 하다가 이것을 찾았어요. 2년 전에 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 신기하게도 이 목록에 적혀 있는 일이 다 이루어졌네요. 썼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가라데 수업 받기, 연극에 참여하기, 공원에서 하룻밤 새우기 등이 그 목록에 적혀 있었는데, 피터는 2년 동안 거기에 써놓은 모든 것을 해본 상태였다. 의식적으로 목록을 점검한 일도 없고, 그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피터의 경험을 통해서 그녀는 ‘목록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것을 깨닫게 된 때의 경험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내 인생의 기념비적인 하루, 나는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저자 사인회를 가졌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의 무대 뒤를 구경했으며 플라시도 도밍고가 부르는 노래를 현장에서 감상했다. 수백만 청취자를 대상으로 라디오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

왔을 때, 까맣게 잊고 있었던 목표 기록장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세상에! 거기에는 내가 그날 막 달성한 일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무엇인가 이루길 바라는 꿈이 있다면 꼭 종이에 정성껏 적어보자. 글로 쓴다는 것은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중된 에너지는 나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적절한 작용을 시작한다. 이것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꿈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해 보며 그때의 기쁨을 만끽해 보는 것도 에너지를 집중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미래의 어느 날, 자신이 기록했던 일들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학창시절 책상 앞에 ‘대통령이 꼭 되고 말테다!’ 라고

써 붙여 놓았다고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우리나라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었고 결국 그토록 꿈꾸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만 적지 말고 대한민국이라는 꿈도 함께 적어놓았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분이다. 자유율법을 지키는 승리제단 식구들도 마찬가지이다.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형제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여겨라.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를 써 붙여라. 그리고 매일 읽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자. 그리고 전 인류를 위한 꿈도 함께 꾸자. 그래야 그 꿈이 완성된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 The day when God will be freed 하나님이 해방될 날

마귀는 분열의 신, 사망이다.  
▶ Satan is the spirit of separation, death.

그러므로 마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는 다수로 분열이 된 것이다.

▶ Therefore, because of Satan, One became many, as we see it now.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다. 반면에 마귀는 사망의 신이다.

▶ God is the spirit of life, whereas Satan is the spirit of death.

이 세상은 생명과 죽음이 공존한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결국 죽는다.

▶ In this world, life and death coexist, and every living creature dies in the long run.

이것은 생명의 신, 하나님 사망의 신, 마귀에 의해 정복당해서 죽는 것을 의미한다.

▶ This means that the spirit of life, God, is dying due to having been conquered by the spirit of death, Satan.

다시 말해서, 마귀는 하나님을 지배했다.

▶ In other words, Satan is dominant over God.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식들을 마귀에게서 부활시킬 미래의 날을 인내심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 So “all creation is waiting patiently and hopefully for that future day when God will resurrect his children (Romans 8:18)”.

이것은 만약 하나님이 마귀에게 해방되면 모든 생명체들, 하나님의 화신들은 사망의 신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며 썩지 않고 죽지 않게 될 것을 의미한다.

▶ This means that if God were freed from Satan, all creatures, the incarnations of God, would be freed from the spirit of death, and would never rot and die.

by Alice



특별기고

# 불사영생과 평화통일의 염원을 실현하는 전지전능한 궁극의 반도체\_메시아 구세주

국내 최대 반도체 생산 회사가 창사 이래 최대의 영업이익(14조원)을 거두면서 두 개의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하나는 시가총액 글로벌 1위인 애플을 영업이익에서 제치고, 다른 하나는 세계 반도체업계 1위인 인텔을 매출에서 뛰어넘었다.

한국 기업 삼성이 애플을 분기 영업이익에서 앞지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반도체 업계 1위 자리를 1993년 이후 24년간 지켜온 반도체의 황제 인텔을 영업이익만 아니라 매출액에서도 넘어지며 명실상부한 반도체 1위 메이커로 등극했다.

재계 관계자는 ‘S전자의 2분기 실적은 여러 면에서 한국 기업사에서는 기념비적인 성적’이라며 ‘대한민국 1등 기업이 글로벌 1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 반도체, 정의와 그 응용

반도체가 우리 생활 전반에 널리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 스마트폰부터 시작하여 노트북, TV, 자동차 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할 모든 전자제품에 반도체가 쓰이지 않는 제품이 거의 없다.

반도체는 ‘상온(常溫)에서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과 잘 통하지 않는 절연체의 중간 정도 전기저항을 가지는 물질’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전기전도도에 따라서 물질을 분류하게 되면 크게 도체(導體)와 반도체(半導體) 그리고 부도체(不導體)로 나뉘게 된다.

도체(導體)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부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이라 했을 때, 반도체는 순수한 상태에서는 부도체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지만 불순물을 첨가하거나 빛 혹은 열에너지가 가하면 자유전자가 생겨 전기가 통하는 도체가 된다.

우리가 반도체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전류의 흐름을 조절하

기 위함이다. 반도체는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등으로 이루어진 집적회로 소자 이외에도 첨단 전자산업 부문에 넓게 응용되고 있다.

다양한 전자제품의 필수 부품으로 쓰이며 생활에 편리를 가져다줬기 때문에 반도체를 ‘마법의 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부도체인 마귀신이 도체의 하나님 신을 점령, 반도체 하나님 인간으로 전락한 선악과 사건

우주 생성 이전과 이후의 원리를 가장 닮은 것이 반도체의 속성이다.

성경 창세기1장 1절과 2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썩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라고 번역하였다.

우주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혼돈과 공허한 존재했을 뿐 식물들과 생명체들로 가득 채워져야 할 땅에는 아직은 아무 것도 채워지지 않은 공허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만약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주관하셨다면 어찌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 있었겠는가?

이 모든 의문은 메시아 구세주의 출현을 통해서 명백하게 그 진실이 밝혀졌다. 메시아 구세주의 말씀에 의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영원영원 전부터 영생과 통합의 신성을 지닌 하나님과 죽음과 분열의 속성을 지닌 마귀신이 각자의 속성으로 존재해 왔으나 지금으로부터 6천 년 전 마귀신이 하나님의 신을 점령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인간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다.

하나님이 분열과 죽음의 신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순간 우주 만물이 역만 가지 마귀의 형상으로 변형·변질이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포로로 갇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신과 마귀 신이 혼재함으로 인해서 삶과 죽음, 생성과 소멸이 동시에 존재하는 반도체의 상태로 변화가 된 것이다.

메시아 구세주의 말씀에 의하면, 마귀 신에게 점령당하기 이전(마귀 신과의 교류가 있기 이전)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생의 신, 빛의 신, 자유의 신, 하나님의 신이었다. 반면에 마귀 신은 죽음의 신, 분열의 신, 어둠의 신, 구속과 제한의 신이었다. 서로가 영원영원 전부터 극과 극의 양극단에서 각자 존재해 왔을 뿐 서로의 속성을 전혀 몰랐다.

도체와 부도체의 속성으로 각자도생했을 뿐 서로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나 교류 자체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 우주생성의 비밀, 선악과의 속성을 지닌 반도체 하나님 인간 그리고 반도체 지구

메시아 구세주의 또 다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마귀신의 속성을 완전히 간파하여 장차 마귀 신을 완전히 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귀 영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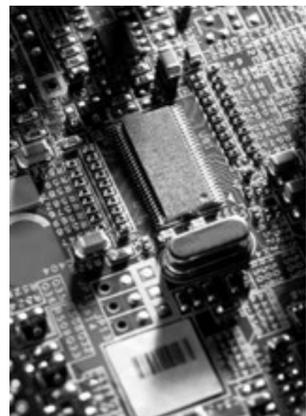
하나님의 신이 마귀에게 점령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마귀 영을 받아들였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과 마귀신이 병존하는 상태가 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체들에게는 생명과 건강함에서 죽음과 질병으로 소멸하고 쇠락하는 안락과 고통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다.

성경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룰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것은 선악과 사건으로 마귀 신에게 점령당함으로 인해 영생의 속성과 능력, 기억과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 반도체 하나님으로 전락한 인간들이 선악과의 실체를 모르고 잘못된 기록 누렸던 에덴동산이 하늘나라였듯이 반도체 하나님인 인간의 생존 공간인 지구 역시 반도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 인공지는 ‘알파고’의 약진에 반도체 주목, 인간 두뇌 닮은 ‘똑똑한’ 반도체사 개발

이세돌 9단과 세계적인 바둑대국을 펼친 알파고에는 1202개의 중앙처리장치(CPU)와 176개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기계와 인간이 치룬 다섯 번의 바둑 대결의 중심에는 반도체 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인간의 뇌를 따라하려는 인공지능 컴퓨터의 뇌 기능을 반도체가 맡아야만 하기 때문에 반도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서버 300대를 병렬 컴퓨팅한 알파고에 투입된 D램 용량이 170GB라고 한다. 반도체 양이 이처럼 많은 이유는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 방식이 수많은 컴퓨터를 연결, 인간의 뇌를 흉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머지않아 외출 준비를 하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가 집 앞에 와서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SF 영화의 한 장면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포스텍 연구팀이 간단한 구조로 슈퍼컴퓨터로 불리는 인간의 두뇌를 모사해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반도체 소자 개발에 성공, 뇌신호를 통한 기기제어나 스마트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왔다.

인간의 두뇌는 1천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인 뉴런이 시냅스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다른 뉴런과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작동해 순식간에 정보를 처리할 뿐 아니라 저장하며 되돌려준다.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황현상 교수 연구팀은 뇌의 시냅스와 뉴런 역할을 해 병렬적인 정보 처리와 학습을 할 수 있는 초소형·초절전 뉴로모픽 소자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또한 나노미터 단위로 크기를 줄여도 이 같은 소자의 특성이 유지돼 실제 신경망이 촘촘히 얽혀있는 인간의 두뇌같이 시냅스와 뉴런의 높은 밀도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결과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반도체소자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회의인 국제전자기기회의를 통해 발표돼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은 전지전능한 영생복락의 반도체 메시아 구세주 시공을 초월하는 도체(導體)로 원시반본 보광(普光)

성경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었을 때 마귀가 들려 있는 술객 역시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영원 영원전서부터 하

늘나라 에덴동산에 존재해왔던 삼위일체 하나님-하나님·아담·해와-이 6천 년 전 모방의 신 마귀에게 점령당하여 100% 마귀, 1% 부족한 99% 하나님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반도체 하나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시한부 하나님인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성경은 흠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의 이사야서 34장 16절에는 “여호와 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나니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짝이 맞지 않는 말씀은 곧 마귀 말이라는 의미다. 만약 태초에 하나님이 흠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흠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어야 짝이 맞는 말씀이다. 그러나 인류역사 6천 년 이래로 인간이 원래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지 성경말씀을 정확하게 짝을 맞추어 설명해 주는 주인공이 없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긴자 구세주로 출현하신, 전지전능한 영생복락의 반도체로 부활하신 메시아 구세주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고전 15:45)”

1981년 10월 15일, 하나님은 인류역사 6천년 만에 1% 감추어졌던 마귀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 박멸소탕함으로 메시아 구세주, 삼위일체 완성자 하나님으로 부활하시어 인류 구원의 문을 여셨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분신과 변신의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의 메시아 구세주는 중성자 빛이 속성을 가진 완전한 도체(導體)로서 모객 역시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영원 영원전서부터 하

안병천/승리제단 기획부장